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최인숙^{1*}, 박유미²

¹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²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et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eacher's Efficacy

In-Sook, Choi^{1*}, Yu-Mi, Park²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 및 교사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를 알아보고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라북도 I시와 충청북도 H시에 소재하고 있는 3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 유아교사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인관계 반응지수도구(IRI),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CQ), STEBI를 유아교사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효능감은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고통 이외의 모두 3점 이상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 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eacher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 358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emotional empathy scal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 and the teacher efficacy scal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In order to determine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pre-service teachers, the frequency and percentages were used. For examination of empathetic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In addition, in order to assess the relationship among empathetic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Lastly, for the examination of the effects and relative explanation of empathetic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shown to have higher empathetic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eacher efficacy rates than average.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empathetic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ir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influenced by their empathet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eacher efficacy improvement programs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uld consider their empathetic ability. Also, study results emphasize the necessity of empathet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words :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acher efficacy, pre-service teac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이 논문은 2018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Choi(WonKwang Health Science Univ.)

Tel: +82-63-840-1736 email: ischoi00@wu.ac.kr

Received September 7, 2018

Revised (1st September 22, 2018, 2nd September 31, 2018)

Accepted November 2, 2018

Published November 30, 2018

1. 서론

현대가족 구조의 특징 중 하나인 핵가족화는 가정 내 자녀양육 모델의 부재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을 유발하였고,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어린 연령부터 부모가 아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영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이용 연령은 하향화 되었으며,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도 증가하였다.

영유아기는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돌봄과 교육을 받느냐는 영유아의 인성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영유아시기의 주된 환경은 영유아교육기관이며, 그 환경 내에서 주된 돌봄과 교육이 함께 하는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바른 인성과 배려를 가진 교사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예비유아교사 양성대학에서는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과 교육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사 효능감이나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자 교육과정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신념이자 태도인 교사 효능감은 영유아를 교육하는데 있어 더욱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교사로서의 유능성과 관련이 있는 교사효능감은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지도능력에서의 개인을 설명하는 변인이며 교육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교사 효능감은 교사의 기대와 신념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유아교사는 교사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 자신의 직무영역은 물론 유아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1].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교사 효능감은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또는 그 이전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효능감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은 교직에 대한 열정, 의사결정성, 자아 존중감에도 관계가 있으며[2], 교직선택 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3]. 유아교사의 교사 효능

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4],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연령이 어린 유아들일수록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서로가 얼마나 공감하는가에 의해서 그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공감능력이라고 한다.

공감능력이란 타인과 자신의 사물에 대한 이해의 근원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 및 심리상태를 자신도 같이 지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5].

유아교사들은 영유아를 비롯하여 학부모, 원장 및 동료교사 등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갈등에 놓이게 된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영유아교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는 자신의 요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의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면 유아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노력과 훈련에 의해 증진될 수 있으며[6]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향상시킨다면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이 높을 때 인성[7], 행복감[8], 직무만족도[9]가 높았다. 또한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공감능력이 높은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사역할 수행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10], 공감능력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공감능력 역시 교직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7].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신념이 인간관계 안에서 행동으로 표출되며 이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생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필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연속선 상에 있고 상대가 어떤 사고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교사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행동, 기대, 반응과 관련된 심리적 양식을 대인관계라고 한다[11]. 유아교사는 하루일과 안에서 유아들과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유아들

의 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직장 내에서 혼자가 아닌 다른 동료 교사들과 협력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관계 중심의 업무를 수행 해 나간다. 이렇게 업무의 중심이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이 기본이다 보니 유아교사에게 있어 대인관계유능성은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대인관계의 문제가 직무수행이나 직무만족도와 연결되어 있고[12, 13],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교사는 행복감도 높다는 연구결과[14]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대인관계 기초형성과, 또래와의 관계형성, 대인관계 확장 등 유아의 대인관계능력을 신장시키고[15],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16].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인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17].

대인관계 유능성은 교육에 대한 교수 방법과 신념을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과 직무에 대한 능력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도전을 하는 것으로서 교사 효능감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교사는 교사 효능감도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효능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위의 연구 필요성 및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효능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예비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I시와, H시에 위치한 대학교 2곳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무응답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총 358부가 분석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먼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고 연구 본래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Frequency	Percentage	Total(%)
Gender	Male	19	5.3	358(100)
	Female	339	94.7	
grade	grade 1	135	37.7	358(100)
	grade 2	137	28.3	
	grade 3	86	24.0	

2.2 연구도구

2.2.1 공감능력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8]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RI)를 박성희[19]가 번역하고 이상순[1]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채점은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감능력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rach's α 계수는 인지적 공감 .71, 정서적 공감 .79이며 전체 .75로 나왔다.

2.2.2 대인관계 유능성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20]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ICQ)를 김창대와 김수입[2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인 지지나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 5가지 영역에서 각각 8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채점은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rach's α 계수는 처음 관계맺기 .81, 타인에

대한 불감 주장 .80, 자기노출 .74, 정서적인 지지나 조언 .78, 대인갈등 다루기 .72이며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는 .88로 나왔다.

2.2.3 교사효능감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Enochs와 Riggs[22]의 과학 교수효능감 척도인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를 이븐러 [23]가 ‘유치원 교사’에게 맞게 수정·보완하고 이를 보완한 안상미[24]의 25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역할이나 태도가 유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 교사효능감’(12문항)과 교사 자신이 유아에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개인적 교사효능감’(13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5점 Likert식 방식으로 총점은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 는 일반적 교사효능감 .69, 개인적 교사 효능감 .83이며 교사효능감 전체는 Cronbach's α 값는 .7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효능감의 수준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효능감,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gnition level for each factor

variable	sub-factor	M	SD
cognitive empathy	takin perspective	3.64	.49
	imagining	3.33	.50
	total	3.48	.40
emotional empathy	sympathetic interest	3.55	.52
	personal pain	2.67	.39
	total	3.11	.34
empathy ability total		3.30	.33
interpersonal ability	relationship initiation	3.46	.62
	expression for right and reject	3.50	.61
	self-disclosure	3.57	.52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3.72	.47
	interpersonal conflict	3.64	.45
interpersonal ability total		3.58	.42
teacher efficacy	general efficacy	3.03	.36
	individual efficacy	3.24	.40
teacher efficacy total		3.14	.33

공감능력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공감능력 전체의 평균은 3.30($SD=.33$)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M=3.48$, $SD=.40$)에서 하위요인별로는 관점 취하기($M=3.64$, $SD=.49$), 상상하기($M=3.33$, $SD=.50$)에서 관점 취하기가 상상하기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정서적 공감($M=3.11$, $SD=.34$)에서의 하위요인별로는 공감적 관심($M=3.55$, $SD=.52$), 개인적 고통($M=2.67$, $SD=.39$)에서 공감적 관심이 개인적 고통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유능성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의 평균은 3.58($SD=.42$)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별로는 처음관계맺기($M=3.46$, $SD=.62$),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M=3.50$, $SD=.61$), 자기노출($M=3.57$, $SD=.52$), 정서적 지지 및 조언($M=3.72$, $SD=.47$), 대인갈등 다루기($M=3.64$, $SD=.45$)에서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처음관계맺기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예비유아교사 교사 효능감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교사 효능감 전체의 평균은 3.14($SD=.33$)로 나타났다. 교사 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는 일반적 효능감은 ($M=3.03$, $SD=.36$), 개인적 효능감은 ($M=3.24$, $SD=.40$)

Table 3. Correlations for each factor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81**														
3.	.81**	.82**													
4.	.55**	.48**	.63**												
5.	.01	.25**	.16**	.12*											
6.	.42**	.50**	.57**	.83**	.66**										
7.	.72**	.76**	.90**	.81**	.43**	.86**									
8.	.31**	.27**	.36**	.39**	-.16**	.20**	.33**								
9.	.27**	.21**	.30**	.22**	-.13*	.09	.23**	.53**							
10.	.42**	.34**	.46**	.46**	.03	.36**	.48**	.64**	.57**						
11.	.58**	.38**	.59**	.51**	.06	.42**	.59**	.50**	.45**	.68**					
12.	.58**	.34**	.57**	.47**	.04	.38**	.55**	.33**	.29**	.52**	.77**				
13.	.53**	.39**	.56**	.51**	-.06	.35**	.53**	.79**	.75**	.87**	.83**	.70**			
14.	.36**	.34**	.43**	.30**	-.14**	.31**	.21**	.42**	.20**	.21**	.33**	.49**	.41**		
15.	.31**	.17**	.29**	.29**	-.18**	.11*	.33**	.27**	.40**	.46**	.41**	.46**	.24**	.41**	
16.	.40**	.30**	.43**	.36**	-.04	.25**	.33**	.29**	.44**	.54**	.53**	.53**	.39**	.80**	.87**

$p < .05^*$ $p < .01^{**}$ $p < .01^{***}$

1. takin perspective, 2. imagining, 3. cognitive empathy total, 4. sympathetic interest, 5. personal pain, 6. emotional empathy total, 7. empathy ability total, 8. relationship initiation, 9. expression for right and reject, 10. self-disclosure, 11.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12. interpersonal conflict, 13 interpersonal ability total. 14 general efficacy, 15. individual efficacy, 16. teacher efficacy total

으로 개인적 효능감이 일반적 효능감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3.2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 효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 중 공감적 관심은 처음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으며, 개인적 고통에서는 처음관계 맺기와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유능성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r=.39,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적 효능감에서는 처음관계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으며, 개인적 효능감에서는 처음관계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r=.33,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일반적 효능감과 인지적공감은 $r=.43, p>.01$ 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인지적 공감의 하위 요인 중 관점취하기, 상상하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정서적 공감은 $r=.31, p>.01$ 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 중 공간적 관심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개인적 고통에서는 부적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개인적 효능감과 인지적 공감은 $r=.29, p>.01$ 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인지적 공감의 하위 요인 중 관점취하기, 상상하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정서적 공감은 $r=.11, p>.01$ 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 중 공간적 관심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개인적 고통에서는 부적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3.3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 효능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한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19, 2.047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확

인을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IF)값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1이상(.42 ~ .83, .91)의 값으로 나타났고, VIF값에서는 10이하(1.09 ~ 2.36, 1.10)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 요인들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감 능력 중 관점 취하기가 24%로 가장 높았으며 공감적 관심은 3%를 추가하여 27%의 영향력을 개인적 고통은 4%를 추가하여 총 31%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F=12.53, p < .001$). 즉,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값이 증가할수록 교사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개인적 고통은 값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처음관계 맺기에서 19%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은 3%를 추가하여 2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그 뒤로 정서적지지 및 조언이 5%를 추가하고 대인관계 갈등은 2%를 추가하여 총 34%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F=9.81, p < .001$). 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대인갈등 다루기,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은 값이 증가할수록 교사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높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Empathy ability factor and interpersonal ability factor affecting teacher efficacy

	B	β	t	R ²	Ads. R ²	F
(constant)	17.02					
taking perspective	.14	.04	3.08**	.31	.24	12.53***
sympathetic interest	.12	.05	2.46**		.03	
personal pain	-.14	-.03	-3.14**		.04	
(constant)	13.98					
relationship initiation	.22	.18	3.91***		.19	9.81***
expression for right and reject	.23	.22	3.41**		.04	
self-disclosure	.19	.18	3.26**	.34	.04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37	.32	4.72***		.05	
interpersonal conflict	.12	.13	2.47**		.02	

$p < .05^*$ $p < .01^{**}$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 효능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공감능력 전체 평균은 3.30,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 평균은 3.64, 교사 효능감 전체 평균은 3.14로 나왔다. 이 중 공감능력 전체와 하위 요인 중 개인적 고통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은 3점 이상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일치하는 결과이며[8, 25, 26],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최자영[11] 연구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유능성 역시 전체를 포함하여 하위영역 역시 모두 3점 이상이였으며 하위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 자기노출,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처음 관계 맺기 순으로 나타났다[17, 27]. 예비유아교사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있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만족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 중 개인적 교사 효능감이 일반적 교사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효능감과 개인적 효능감의 수준에 대해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김하니[28], 배성희[29] 연구에서는 일반적 효능감보다 개인적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박경[30] 연구에서는 일반적 교사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인 일반적 교사 효능감,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개인적 교사 효능감이 교사의 여러 배경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 효능감의 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교사 효능감과 공감능력 간에는 $r=.33$, 교사 효능감과 대인관계 유능성간에는 $r=.39$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간에는 $r=.53$ 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교사 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직무영역[9], 의사결정, 자아존중[2]과도 관계가

있으며, 유아와의 상호작용과도 관계가 있음[4]을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 교사와 영유아 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교사와 영유아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서와 상황에 대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공감능력과 서로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발달되어야 한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가 되기 전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발달시켜 바람직한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교사 효능감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은 31%의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대인관계 유능성은 34%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정서표현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뿐 아니라 교사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1]와 특수교사의 공감적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효능감 및 과제난이도가 높다는 연구[32]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교사의 높은 공감수준은 교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이 되는 동시에 교사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33].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수 상황에서 영유아들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개발하고 유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며 문제를 가진 유아들에게 더 끈기를 갖고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사로서 학습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교수 효능감을 갖고 있기에 좀 더 유아들의 생각을 지지하고 공감해 주면서 교사 자신의 교육활동에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친절한 행위나 적극적인 자세 등의 대인관계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16, 17]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이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교사양성대학에서 교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감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교사 효능감에 대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하는 수준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예비유아교사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떤 변인들이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적으로 접근하였으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해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을 함께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해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H. Woo, The Effects of Being Child Care Facility Accreditation System or Not on Child Care Teachers' Efficacy Belief.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aster's Thesis, 2007.
- [2] G. O. Hong, H. W. Kang, "Relation betwee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decision making, self-esteem, and their teaching-efficacy".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vol. 14. pp. 5-17. 2011.
- [3]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SungShi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4] U. Y. Chon, Influence of childcare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the interaction between a teacher and an infant. Graduate School Chongshin University, 2018.
- [5] S. S. Lee,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s' Disciplinary Typ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eachers' Sympathy Abilities, and Students' Trust in Teachers.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6] M. L. Ho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7] E. A. Choi,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Empathy and Ethical Perception on the Personality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 pp.822-847, 2016.
- [8] J. S. Park, "The Study on Variables which Affected

- Empathy and Happi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cused on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1. pp. 97-118, 2015.
- [9] I. H. Hwang, S. H. Ja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pathy Ability Scale and Job Efficiency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2, pp. 232-242,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2.232>
- [10] M. S. Choi, “A Study on Student Teachers’ Recognition of a Teacher’s Role relative to Empathy and Care-Oriented Morality”. *The Korea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6, no. 5, pp. 425-444, 2006.
- [11] J. Y. Choi, A study on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empathet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parent-teacher partnership behavior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8.
- [12] G. I. Kim, Study on Kindergarten Teacher’s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Interpersonal Stress and Principals’ Communication Styles as Perceived by Them. Graduate School. Sunghsin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3] Y. S. Choi, A study on interpersonal stress and turnover decision-making experience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Graduate School. Sukmyoung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4] H.J. Han, H. A. Seo, S. L. O, J. M. Ha,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Ego-Resilien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 10, no. 6. pp. 143-164, 2014.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4.10.6.143>
- [15] H. J. Kim, Y. Y. Park, E. J. Cho,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Interpersonal Teaching Efficacy.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3, no. 1, pp. 121-138, 2009.
- [16] Y. J. Kim, J. H. Park. S. H. Ahn. The Effects of Early Child Care Teachers’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cher Self-efficacy to Enlist Parental Involvement on Parent-Teacher Partnership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33, no. 5, pp. 71-89, 2012. DOI: <https://doi.org/10.5723/kjcs.2012.33.5.71>
- [17] C. W. Pyo, E. J. Seok, “Effect of Self-Growth Program on the Freshma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self-esteem and personal relations capability”. *The Korean Society for Study on Welfa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vol. 14, no. 4. pp. 119-139, 2010.
- [18]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10. no. 85. 1980
- [19] S. H. Park, (An) experimental study on empathy in relation to the altruistic behavi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 University. Ph.D Thesis, 1997.
- [20]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pp. 991-1008,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 [21] C. D. Kim, S. I. Kim, “Study on Effect of Group Counsel Program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creasing”, *Studies on Student*, vol. 35, no. 1, pp. 83-95. 1999.
- [22] L. Enochs, & I. Riggs,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vol. 74, no. 6 pp. 625-637. 1990. DOI:<https://doi.org/10.1111/j.1949-8594.1990.tb12048.x>
- [23] B. R. Lee,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limate, Job satisfaction and Teacher’s Sense of Efficacy in the Kindergartens. Graduate School. Ehw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 [24] S. M. Ahn, The interactions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children by teachers’ efficacy belief. Graduate School. Ehw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25] J. S. Park, H. J. Shin,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Ego-resilience on Pre-service Early Children Teac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1, no. 2, pp. 215-236, 2017. DOI: <https://doi.org/10.22155/jfcee.24.2.151.170>
- [26] S.H. Kwon, “An analysis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resilience”.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6, no. 1, pp. 47-66. 2011. DOI: <https://doi.org/10.16978/ecec.2011.6.1.002>
- [27] J. S. Kim, H. J. Choi, “Influence of Gratitude Disposi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eacher 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25, no. 3, pp. 247-267. 2015.
- [28] H. N. Kim,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happiness among daycare teachers. Graduate School. B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29] S. H. Bae, “The Effect of the Happiness of child care teacher on teacher’s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B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22, pp. 25-44, 2009.
- [30] K. Park, The influence of Kindergarten Teacher’ Job-Satisfaction and Efficacy on internal external Behavior Problems, Self-Esteem of Early Childhood. Graduate School. Kwangju Women’s University. Ph. D. Thesis, 2013.
- [31] M. J. Hyun,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Expression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 2, no. 4, pp. 115-133, 2017.
- [32] S. D. Seo, The Influences of Degree of Empath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Teacher-Efficacy and Job Stress. Graduate School. Kyoung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33] S. S. Gu,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ies and Social Abilities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th Disabilities*. vol. 55, no. 4, pp .377-393, 2012. DOI: <https://doi.org/10.20971/kcpmd.2012.55.4.377>

최 인 숙(In-Sook,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 석사)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5년 6월 ~ 2018년 2월 : 군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원장
- 2018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육학

박 유 미(Yu-Mi,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 석사)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우송정보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육학